

# 수능 영역별 가중치 꼼꼼히 따져야

## ■ 수능 첫 등급제 혼란... 지원 어떻게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등급제로 실시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 정시모집에서는 등급별 동점자가 많아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와 학교생활기록부 실적반영비율 등 전형 요건을 꼼꼼히 분석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반영하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3과목을 반영한다.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반영여부, 등급 산정방식도 모두 달라 자신의 성적을 미리 계산한 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지 따져서 지원해야 한다.

### 매일 주제 정해 훈련

▲**논술이 좌우=**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한 번쯤 시험 형식의 모형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는 안된다. 큰 점수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논술은 대부분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고 인문계열은 물론 자연계열도

### ■ 수능 가산점 부여 및 과목 지정 대학

구분	가산점 부여 대학		과목 지정	
	수리/가형	과학탐구	수리/가형	과학탐구
국공립	강릉대, 강원대(춘천), 경북대, 경상대, 광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일양), 상주대, 서울산업대, 순천대, 인천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충주대, 한림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강원대(춘천), 경상대, 광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일양), 상주대, 서울산업대, 순천대, 인천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충주대, 한림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광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일양), 상주대, 서울산업대, 순천대, 인천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충주대, 한림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광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일양), 상주대, 서울산업대, 순천대, 인천대, 전남대(광주), 전남대(여수),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충주대, 한림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사립	가천의과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송주), 건국대, 경기대, 경남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서울), 경희대(수원),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극동대, 단국대(천안), 덕성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원대, 대전대, 동국대(서울),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원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상명대(천안), 성지대, 서경대, 서울대, 선문대, 성일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인강대, 영남대, 울산대, 영산대(양산), 울산대, 을지대(경기), 을지대(대전), 인제대, 인하대, 조산대, 청운대, 청주대, 경덕대, 포항공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정보통신대, 한국항공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신대, 한신대	건국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서울), 계명대, 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원대, 대전대, 동명대, 동아대, 동원대, 명지대, 부산외대, 상명대, 성지대, 서경대, 성신여대, 성일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인강대, 영남대, 울산대, 영산대(양산), 을지대(경기), 을지대(대전), 인제대, 인하대, 조산대, 청운대, 청주대, 경덕대, 포항공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정보통신대, 한국항공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신대, 한신대	가톨릭대의예과: 과학 II 과목 이상, 성공관대의약과: 지구과학 제1의 선택과목, 화학 I, II 1과목 생물 I, II 1과목 연세대의예과: 과학 I, II 1과목 포함 울산대의예과: 과학 I, II 2과목 포함 중부대의예과: 화학 I, II, 생물 I, II	가톨릭대의예과: 과학 II 과목 이상, 성공관대의약과: 지구과학 제1의 선택과목, 화학 I, II 1과목 생물 I, II 1과목 연세대의예과: 과학 I, II 1과목 포함 울산대의예과: 과학 I, II 2과목 포함 중부대의예과: 화학 I, II, 생물 I, II
합계	70개교 99개교	44개교 61개교	6개교 6개교	6개교 6개교

## 1곳 소신·1곳 안정·1곳 상향 지원을 자신에 유리한 최상 등급 조합 찾아야

부 반영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올바른 대학 지원을 위해서 4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점자를 구분할 수 있는 논술과 학생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잘 알아서 활용해야 한다.** 대개는 수리나 외국어 언어 탐구순이다. ▲**동점자를 가산점 수리나 외국어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다.** 이 대학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대학마다 영역별로 반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비율을 잘 파악해서 대학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파악

이처럼 많은 동점자를 변별하기 위해 같은 대학에서도 모집단위나 모집군에 따라 수능 반영 영역 및 가중치를 다르게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입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최상의 등급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지원전략의 키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다. 수능 등급 간 점수차, 영역별 가산점, 탐구영역 반영과목 수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등은 4과목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등급제로 동점자가 지난해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하고 논술훈련을 하고, 면접에 대비해 친구나 가족들과 실천처럼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모집군별 2~3개 대학 정해야** =3개의 모집 군별로 볼 때 한 곳은 소신껏 지원을 하고 1곳은 상향지원, 1곳은 안정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상위권 대학은 수능 1개 영역, 중위권 대학은 2개 영역을 한 등급 위로 보고 대학을 결정하면 도움이 된다.

원서접수 전에 모집군별로 최소 2~3개 대학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하향 지원이 무조건 합격은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원하려는 대학이 경쟁자가 많이 몰리려 합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한홍수(51) 장성과 진학실장은 "매일 학생들 면담을 하고 있는데 대학별 전형 방법이 각각 각색이기 때문에 각 대학전형방법을 숙지하고, 영역별 등급을 잘 적용해서 맞춤형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가나 다 군에서 안정·소신·상향지원을 통해 자신의 가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각 대학 논술고사 반영 비율

- ▲20% 이상=서울대, 부산가톨릭대, 상지대, 한림대
- ▲10% 이상=부산대(부산·밀양),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대구 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명지대(서울), 세명대, 수원가톨릭대, 선문대, 영남대, 울산대, 인천가톨릭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 ▲5% 이상=서울시립대, 관동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의대

-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영산대(경남), 이화여대, 인제대, 한국외대(서울), 한성대, 한양대(서울),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 ▲5% 미만= 강릉대, 강원대, 경희대(경기·서울), 계명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대전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서울), 인하대, 중앙대(서울),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광주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권 대학 수능 중요**=서울대는 수능 자격요건을 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고려대, 연세대는 수능 우선선발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위권 수험생에게는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해 졌다.

### 수리영역 점수 중요

서울대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수리영역 점수가 타 영역보다 높아 수리영역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학생부는 1학년보다 2,3학년 보통교과보다 심화교과의 성적이 높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논술을 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매일 주제를 정해 실천처럼 훈련해야 한다. 고려대도 서울대와 같이 1,2등급 점수 차가 수리영역에서 가장 커 수리영역 등급이 안좋은 학생은 불리하다. 수능 2,3등급 격차가 커 2등급 이내 수험생끼리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당락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역시 논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세대로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엇갈릴 수험생들이 불릴 것으로 보여 논술에서 당락이 좌우 될 가능성이 높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들. 수능능력시험 등급제 첫 시행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서울권 7개 사립대 공동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학부모·교사 등 500여 명이 오후 대입 전형 계획을 관심 있게 듣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 '맞춤형 교육' 하니 취업이 절로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인기

### 졸업생 80% 이상 취업

'대학 5학년', '이태백' 등의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 실업률이 날로 높아가는데도 졸업이 두렵지 않은 학과가 있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학과장 최완석 교수)가 최근 2년간 졸업생의 80% 이상을 취업에 성공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졸업생 34명 중 82.4%인 28명이 전공을 살려 직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 2005년 취업률

80.6%(31명 중 25명 취업)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비결은 치열한 전공 공부다. 학과는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등 세부 전공별로 스터디를 조직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 자격증반이나 대학원반 등 졸업 후 진로에 맞게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할 수가 있다.

교수가 직접 스터디를 지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최완석 학과장은 "업체에 취직했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최근의 업계 동향 등을 알려주는 등 이른바 기

업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들의 대우도 만만찮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 졸업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4년제 학과 중 '도시·지역학과'의 연봉 순위가 2천851만원으로 '약학과', '항공학과'에 이어 3위였다.

최 학과장은 "엘빙 열풍 등 현실에서 편안한 주거 및 도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과의 전망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캠퍼스 소식

### 도시철도소·호남대 산학협정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와 호남대(총장 이현정)가 29일 호남대 황룡관에서 지식경영에 대한 유가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산학협정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및 교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학술교류, 공동연구, 교육시설과 기자재 공동 활용 등 공동으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기업과 대학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을 전개하기로 했다.

### 광주대생들 광고 공모전 입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최근 열린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잇따라 입상했다.

시각디자인과 장영일(3년), 김효주(2년), 강단비·장한나(2년)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주최한 '건전 경륜 문화 조성을 위한 제 1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신문광고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앞서 시각디자인학과 박선우(4년)군과 홍자연(2년)양이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주최한 '제4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 신문광고를 출품해 3등상에 해당하는 '가작'을 수상,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 컴퓨터정보과 졸업 전시회

조선대학교 이공대학(학장 김형근) 컴퓨터정보과(학과장 김남중)는 지난 28일 오전 대학 3호관에서 2007 졸업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회에는 메이거스 게임, 디카코리아, 코믹툰, 스타일 엔진 의류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와 타이틀, 침실, cube 등의 그래픽, 바이오인 증 솔루션, 피자 배달관리, Direct Show를 이용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프로그램, 비행 시뮬레이션 등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들이 전시됐으며 컴퓨터 IT산업 분야의 동향과 비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애니체**

Anych

TEL: 1588-9194

**사적절세질서**

TEL: 1588-9194